

[사회]

'황사 후폭풍' 환자 속출

광주지역 호흡기 질환·눈병 등 호소 병원 '복적'

마스크 판매 불티

울 들어 최악의 황사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기관지나 눈질환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2일 소아과·이비인후과·안과 등 병원에 따르면 황사 관련 질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평소보다 10~20%가량 늘어났다.

특히 저항력이 약한 노인·어린이 등은 황사 피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면서 병원 대기실마다 이들로 붐비고 있었다.

광주 미래로 21 병원 소아과의 경우 평일 50여 명의 환자가 오지만 이날은 70여 명의 환자가 몰렸다. 대부분 갑작스럽 황사 공습으로 인해 어린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 증상을 앓은 어린이들이 많았다.

알레르기성 눈질환이나 결막염, 각막염 등으로 안과를 찾는 환자도 크게 늘었다. 황사 먼지가 눈에 들어가 각막과 결막의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막을 자극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각막 미란(찰과상), 각막염 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조철웅(42) 광주 안과 원장은 "황사 피해로 평소보다 15% 정도 환자 수가 늘었는데 증상이 가볍고 쓰리는 등 봄 알레르기를 타는 경우가 많다"면서 "알레르기성 질환의 경우 보통 며칠 지나야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1주일 후쯤이면 황사피해 환자가 부쩍 늘 것"이라고 말했다.

봄철 심한 일교차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비염환자들도 황사로 병이 악화한 경우가 많았다. 광주 동구 충정로 반 이비인후과 의원

의 경우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약국의 경우도 마스크와 안약, 기관지 약을 찾는 손님들로 이날 하루 종일 북적거렸다.

북구 용봉동 빛고을 약국 이광식(60) 약사는 "평소 하루 1~2개 팔리던 마스크가 1일에는 300여 개가 팔렸고, 황사가 지나간 뒤에는 눈 충혈 환자도 많아 안약 10여 개와 용각산 등 기관지 약 10여 개가 팔렸다"고 말했다.

최지환 미래로 21 병원 소아과 원장은 "황사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황사 발생 시는 알레르기성 비염환자들도 황사로 병이 악화한 경우가 많았다. 광주 동구 충정로 반 이비인후과 의원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몽준 의원 名搏 수여 무기연기

전남대 철학과 교수·학생들 반발

전남대가 무소속 정몽준 의원에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하려던 계획을 대학 구성원의 반발로 무기연기했다.

전남대는 "3일 정 의원을 초청,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했으나 정 의원과 대학의 일정이 맞지 않아 무기연기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언제 수여식을 열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혀 철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학 측이 수여식을 연기한 실질적 이유는 철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이다.

철학과 교수들은 지난달 30일 교수회의를 열고 "정 의원의 행적을 봤을 때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 명분이 충분치 않다"며 "학위 수여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총장에 보냈다.

대학원생 43명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전남대는 지난해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제1호로 지정됐는데, 정 의원은 울산과학대 이사장으로서 학내 환경미화원들의 노조활동을 탄압한 사건으로 부각된 인물이다"고 주장했다.

학부생들 역시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전체를 위한 철학의 이념에 부합하는 인물이 아니다"며 "대학본부는 학위 수여 진행 과정을 구성원과 함께하지 않고 학위 수여에 대한 정당한 명분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대학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주-전남지역이 대승적 차원에서 각계각층을 포용,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차에 여러 대학에서 정 의원에 제안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꺼이 협력에서 학위 수여를 발의,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태중기자 hwangtae@

쌀쌀한 아침
구름이 조금 꺼졌다.

4월 3일
(음 2월 16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조금	1~11℃
부산	구름 조금	2~9℃
대구	구름 조금	4~10℃
대전	구름 조금	2~10℃
충주	구름 조금	-1~11℃
청주	구름 조금	1~10℃
전주	구름 조금	1~10℃
광주	구름 조금	3~11℃
제주	구름 조금	1~10℃
서울	구름 조금	-1~13℃
인천	구름 조금	-1~19℃
대구	구름 조금	2~10℃
부산	구름 조금	0~10℃
대전	구름 조금	-2~10℃
전주	구름 조금	0~10℃
광주	구름 조금	0~10℃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5~4.0m
면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5~3.0m
면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02:34 썰물 < 07:53
목포 밀물 < 14:46 썰물 < 20:05
여수 밀물 < 09:33 썰물 < 03:23
여수 밀물 < 21:51 썰물 < 15:33

▲해돋이 06:18 ▲해질 18:55 ▲달돋 19:32 ▲달질 06:15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날씨						
최저/최고	1/12	2/18	4/16	7/18	5/17	4/18

비행기도 "황사가 미워~"

한번 세척하는데 최고 300만원

봄의 불청객인 '황사'가 자주 찾아오는 4월이 되면 항공업계는 세척작업으로 분주해진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기의 표면은 대부분 무게가 가벼운 금속성 알루미늄과 비금속성의 복합재료로 돼 있다. 여기에 부식을 막기 위해 접착성이 강한 도료가 입혀진다.

항공기는 이렇게 도장된 부분을 보호하고 외부에 노출된 금속과 부품에 묻은 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세척을 한다. 특히 황사는 비행 중 항공기

동체에 묻은 뒤 지상에서 습기와 반응하면 강한 산화물이 돼 표면을 부식시키고 페인트를 탈락시켜 광택을 덜 나게 만든다. 따라서 황사를 뒤집어쓴 중형급 항공기는 착륙 후 대부분 세척을 해야 한다.

항공기 세척은 기체가 가장 큰 B747 점보기의 경우 9명의 인원이 전문 특수차량을 사용해 약 7~8시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물은 약 6천ℓ, 비용은 300만원 가량이 소요되며 세척 비용은 기종에 따라 50만~300만원대로 다양하다. /연합뉴스



무료진료 '지하철 병원' 광주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광주지역 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2일 오후 지하철도문화정당역에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7시까지 지하철도 13개 역에서 무료진료·세무상담·법률자문 등 '테마가 있는 자원봉사'를 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실업고 출신 공무원 특채합니다"

전남도교육청 전국 최초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실업고 출신자를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다.

전남도교육청은 도내 실업고 고등학교 졸업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이 '제2회 전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에 응시할 경우 제한경쟁으로 공무원으로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선발인원은 난방(1명)·선박(3명)·선박기관(1명) 등 3개 분야 5명이다. 자격 기준은 공고인(3월 23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도내 실업고에 해당 학과(계열) 졸업자로 해당 자격증 소지자 중 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공공기관 절반 이상 청년 채용 의면

의무기준 3% 못채워

공공기관의 대다수가 청년 채용을 의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청년채용 노력 의무가 부여된 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청년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이 넘는 46개 기관이 채용 의무기준인 3%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특별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73개 중 40개가 의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2004년 제정된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은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 출연기

관의 장은 매년 각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원 5천 명이 넘는 대규모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1.8%) ▲한국농촌공사(1.4%) ▲한국철도공사(0.4%) 등이 기준에 미달했다. 한국산전체의 절반이 넘는 46개 기관이 채용 의무기준인 3%를 채우지 못했다.

80개 공공기관 전체의 청년채용 비율은 정원 대비 2.2%에 그쳐 의무기준인 3%에 미치지 못했다. /연합뉴스

운전기사 폭행·위협 내일부터 엄벌

버스·택시 기사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3일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 조항은 운행 중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인류에게 재앙 줄 수도"

정진석추기경 부활 메시지



전주교 서울대학교 정진석(사진) 추기경은 오는 8일 부활절을 앞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한복음 11장 25절)"이라는 제목의 '2007년 부활 메시지'를 2일 발표하고, 최근 정부의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 제한적 허용을 비판했다.

정 추기경은 메시지를 통해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에게 죄로 잃어버린 생명을, 어둠 속에서 빛을 다시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라며 부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죽음의 세력에 대응해 저항해야 한다"며 "배아복제 연구는 복제인간 출산으로 이어져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인류에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삼필기자 camus@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4월 2일 첫진도 개강

고용보험재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본원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백마트 횡단점 옆 광주은행 4F)

희소식 수료 합격과정

기장주부 취업자 자영업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수강료 환급

출석률 80%이상시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무관*

전국 최강의 강사진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유명 출판사 저자 직강*

탁월한 합격 시스템

출결관리, 학습 성취도에 따른 개별 분석지도, 자습실, 사물함 무료 사용

한빛 A+ 현대고시학원 236-2467~8 (동부경찰서 앞)

전남 교육청(가능직) 제한경쟁 특별임용 대특강

속보 가능직 공무원 특별임용

응시인원: 1961. 1. 1. ~ 1989. 12. 31. 18세, 45세 나이

채용인원: 25명 (10등급 조주)

중부권: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장성
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 구례, 장흥, 고흥, 보성
서부권: 목포,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40명

기타: 운전10, 기계1, 난방1, 선박3, 선박기관1, 총116명 임용

① 시험일자: 4월 28일. ② 조주10등급 시험과목: 사회, 일반상식 2과목

*기타 기술직은 전공+일반상식 2과목. 자세한 사항은 전남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개강: 4월 2일 평일 야간반 및 주말반 모집(현재 접수중)

고시명: 무등고시학원 (중원초교 후문앞) 222-4560

경찰직 수험생 및 직장인(20~40세) 공무원합격 절호의 기회!

교정직 특채

360명 남자: 329명 여자: 31명

시험일정: 5월 13일 개강 4월 2일

원서접수: 4월 9일 ~ 4월 15일

시작부터 합격까지! 합격생들에게 100%검증된 서울고시학원에서 합격의 꿈을 이루세요!

한빛 서울고시학원 북구청 맞은편 (062) 251-7959

2007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합격= 한빛이였다! www.hanbitgosi.co.kr

공무원

9급문제풀이, 9급이론반, 9급고급문제풀이

개념·이론·문제풀이, 공무원, 경찰, 소방, 사회복지, 군무원, 교정, 농업, 전산, 보건, 출판관리, 기술직

100% 합격특강 (5월 13일) (13:30~21:50) (시간)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4월 2일 (동부경찰서 맞은편) 234-0234